

유럽 태양광 박람회 6월12일 뮌헨 개막

KOTRA는 국내 태양광기업의 수출촉진 및 글로벌화를 위해 6월 12-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Intersolar 2008에 최초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유럽 최대의 태양광박람회인 Intersolar는 신·재생 에너지 붐을 반증하듯 매년 약 2배 이상의 신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Intersolar는 매년 확대돼 2008년에는 개최 장소까지 프라이부르크에서 뮌헨으로 옮겼고, 전시면적은 2007년 3만4000sqm에서 2008년 7만6000sqm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참가기업도 2007년 638사에서 2008년 1073사로 크게 늘었다.

Intersolar는 개최국인 독일은 물론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등 유럽 태양광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에스에너지, 미리넷솔라, 경동솔라, 심포니에너지 등 총 7사가 참가하며 독일의 태양광 대표 기업인 Solar World, Q.Cells, Schott Solar 등과 활발한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KOTRA는 유럽 태양광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해 박람회 개막 전날인 6월11일에 <Solar Energy in Korea>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독일 신·재생 에너지협회(OTTI)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태양광 관련 우수 기업 약 50사가 참가하며, 국내에서는 기업 및 로펌 관계자 10명이 연사로 나선다.

<화학저널 2008/06/10>